FX Market Daily

2026-05-07

전일동향

전일대비 7.70원 하락한 1,455.10원에 마감

6일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.00원 상승한 1,465.80원에 개장했다.
개장 이후 코스피 7,000pt 돌파를 이끈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주식 매수로 강한 하락 압력 받으며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일대비 7.70원 하락한 1,455.1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4.50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30.22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465.80	1466.00	1451.50	1455.10	1456.80
엔화	926.55	938.09	922.89	930.22	-
유로화	1710.25	1716.98	1696.54	1709.28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1.1	-4	-8.39	-15.19
결제환율(수입)	-0.63	-2.56	-6.1	-11.62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종전 낙관론 부상에...1,44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1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455.10) 대비 9.05원 하락한 1,444.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국내 주식시장이 반도체 관련 주 중심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, 미-이란 전쟁의 최종합의 기대감과 일본 당국의 개입 추정 물량까지 나오면서 금일 하방 압력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중국 방문(14~15일 예정) 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, 이란 측도 미 정부가 제안한 종전 양해각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. 이에 낙관론이 재부상하며 간밤 WTI는 장중 13% 넘게 폭락,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상승하며 위험선호 심리가 극대화되었고, 금일 국내증시에서 추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경우 달러 공급 우위가 뚜렷해지며 환율 하락 압력 키울 수 있다. 한편, 전일 일본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 움직임이 포착되며 달러/엔 환율이 장중 154엔대까지 급락하며 엔화가 강세로 전환했는데 이에 원화가 동조하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다만, 환율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수입업체 결제 및 해외주식투자를 위한 환전 등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37.50 ~ 1450.0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31085.05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.05원↓
	■ 美 다우지수 : 49910.59, +612.34p(+1.24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60.91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6693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